

수신 : 원장

참조 : 경영본부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1-30>

2001. 7. 31

KIEP 북경사무소

중국의 周 5일 근무제 실시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1. 개요

□ 중국정부는 1995년 5월 1일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 실시해 오고 있음.

- 1995년 5월 1일부터 모든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은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
-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허용하여 정부 산하기관은 1996년 1월 1일부터, 기업은 1997년 5월 1일부터 전면 실시
- 이에 앞서 중국은 1994년 2월부터 종래의 주 48시간 근무제에서 주 44시간 근무제로 전환한 바 있으며, 사회적 호응에 힘입어 다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된 것임.

□ 중국의 주 5일 근무제 실시는 사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서비스업과 관광산업 등 3차 산업의 발전 촉진과 고용 창출, 에너지 절약 및 도시 교통난 완화 등에 기여
- 그러나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던 것으로 평가됨.

2. 중국의 周 5일 근무제 실시의 사회 · 경제적 배경

☐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1992년 이후 전면적인 개혁 · 개방정책 실시와 함께 중국경제는 12-13% 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도 크게 증대

☐ 내수시장 부양과 3차 산업의 발전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 기대

- 빠른 속도의 소득증대와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은 크게 부진하였음.
- 국유기업의 경영 악화와 개혁 추진에 따른 실업자 급증으로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함.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서비스 산업과 관광산업 부문의 소비 증가와 3차 산업의 발전 촉진, 동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한 것임.

☐ 에너지 절약과 도시지역 교통난 완화 기대

- 당시 에너지 생산 및 소비량 신장률(2-3%)이 경제성장률과 공업생산 성장률에 훨씬 못미쳤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공업설비의 40%가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3. 중국의 周 5일 근무제 실시의 경제적 효과와 ‘휴일경제’

☐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삶의 질 개선이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효과를 가져 왔음.

☐ 경제적 측면의 효과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상징적

인 의미가 더 컸던 것으로 평가됨.

-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내수시장 부양과 3차산업 발전, 고용 창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통계치는 없으나, 경제 전반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중국 정부는 자체 평가하고 있음.

0 당시 중국 당국은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 관련 소비 증가로 철도, 교통, 항공, 요식업 등 업종에서 100여 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하였음.

0 실제로 1995년 국내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0%나 증가한 1억 명 이상이 늘어났음.

0 소득 증대와 여가시간 증가가 주민의 소비패턴 변화를 초래하여 레저, 스포츠 관련 소비도 크게 증가하였음.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직후보다는 오히려 최근 들어 ‘휴일경제(假日經濟)’의 출현과 함께 보다 가시화되고 있음.

- 중국경제는 1997년 중반 이후 심각한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대외부문도 위축되어 경기 후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

- 이에 중국정부는 1998년 상반기부터 확대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내수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999년부터는 노동절(5월 1일)과 국경절(10월 1일)의 공휴일 수를 기존의 하루에서 사흘(주말에 앞당겨 근무하는 방식으로 실제 휴일수는 일주일)로 대폭 늘려 소비수요 촉진에 주력해 왔음.

- 이른바 ‘휴일경제’ 효과는 중국경제의 전반적 호조와 함께 금년 들어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바, 요식업, 운수업, 관광업, 소매유통업 등 부문의 매출액 급증으로 내수시장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0 중국 국가관광국 통계에 의하면 금년 5·1절 기간중 관광수입은 181억 원으로 지난해 국경절 휴가기간 대비 27% 증가

0 동 기간중 국내 대규모 여행사의 업무량은 50-60%, 전국 철도 및 항공편 승객은 금년 춘절기간 대비 34% 증가

0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 대형 백화점 매출액도 평시보다 20-30% 증가

□ 결론적으로 당초 중국의 주 5일 근무제 실시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소비 확대, 경기 부양,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측면의 효과는 부수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중국의 관련 주요 경제지표>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GDP 성장률(%)	13.1	12.6	10.5	9.6	8.8	7.8	7.1	8.0
소비자물가	14.7	24.1	17.1	8.3	2.8	-0.8	-1.4	0.4
소비재소매총액 (억元)	12,462	16,265	20,620	24,774	27,299	29,153	31,135	34,153
3차산업 총생산액(억元)	11,233	14,930	17,947	20,428	23,029	25,174	27,036	29,704
3차산업 종업원수(만명)	14,071	15,456	16,851	17,901	18,375	18,679	18,989	19,566
국내관광객수 (백만명, 연인원)	-	524	629	639	644	695	719	744
1인당관광비용 元	-	195	219	256	328	345	394	427

자료: <중국통계연감> 해당 연도판